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청신호'

광주시, 국비 1090억 원 확보...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대 규모

저조했던 지자체사업 신규 반영... "국비 증액·추가 위해 최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1000억원대 국비 확보로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2020년 정부예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사업비로 109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05억원보다 285억원(35.4%) 증가한 규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예산은 2016년 768억원, 2017년 716억원, 2018년 718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12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사업(134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94억원), 문화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18억원),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의 핵심사업인 5대 문화권 사업의 일부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자체사업의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부문은 상당부분 진척됐으나 광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등 지자체 사업은 저조했다.

문화전당 건립·운영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총사업비 1조3872억원 중 1조1595원이 투입돼 예산 비율 83.6%에 달한다.

반면 지자체 사업은 2019년 기준 국비 지원예산이 1915억원으로 총사업비 1조3807억원 대비 13.9% 밖에 되지 않았다.

박항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 5대 문화권 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직접사업인 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운영 등 사업에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손 잡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위원 대상 간담회 개최 등 방문·설명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산수1동, 붓글씨 문패 눈길

광주 동구 산수1동이 대문 앞 문패를 제작·전달하는 사업을 펼쳐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문패 달기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서사모(서예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유재영) 회원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만들어진 문패는 지난달 29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45세대에 전달됐다. 10월중에는 무등산 그린벨 로제비앙 아파트 인근 공원 내 이름 없는 정자에 현판을 제작해 달아줄 예정이다.

서구,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광주 서구가 저소득층 주민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촉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청년층 생계급여 수급자(만15세~39세),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지속 모집하고 있다.

구별 8차 모집기간은 9월 2일부터 17일까지(청년희망키움통장은 16일)로 신규가입을 희망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별 공통 지원조건은,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남구, 마을과 학교 잇는 교육 공동체 활발

광주 남구 관내에서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과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이 생태체험 활동을 비롯해 진로 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마을과 학교가 공동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31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활동 중인 마을 교육 공동체는 주월1동 옹정마을 사람들과 푸른길 달빛 마을학교를 비롯해 봉선1동 꿈꾸는 부엉이 안심마을, 대촌동 씨밀레, 방림2동 뽕뽕다리 마을공동체 다락, 주월2동 빛고를 남구마을 허브사이트, 노대동 책문화공간 북, 월산동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동 등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총력

광주 북구가 2019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성공 개최 지원에 적극 나선다.

북구는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북구 주민과 문화·예술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 하는 3대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해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북구 주민 관람의 날, 테마별 버스킹, 가족간기대회 등 9개 자체사업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생생문화제 등 7개 연계사업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 광고물·노점상 정비,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등 8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 고려인마을서 찾아가는 건강상담 실시

1일 광주 광산구가 월곡동 고려인마을교회에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건강상담은 평소 음주·흡연·스트레스 같은 건강문제를 겪고 있지만, 언어 소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진로·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고려인마을 주민들을 위한 자리.

광산구는 이날 고려인마을교회와 함께 주민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혈압·혈당 측정,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했다.

나아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운동·영양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건강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추석맞이 5·18 구묘역서 합동 벌초 지난 1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구묘역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추석맞이 합동 벌초를 하고 있다.

전남도,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스마일센터' 유치 확정

내년 정부예산 30억 전액 반영...전국 14곳 운영

전남도는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등을 위해 추진한 '전남스마일센터' 건립에 내년 정부예산 30억원이 전액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전문적인 심

리치료 서비스 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에는 스마일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이 광주 스마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5월부

터 '전남스마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0년 예산 확정 후 스마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와 인권 보호, 안전한 사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